

# 창단 두달 광주도시철도공 여자유도 첫 메달

춘계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  
신슬기·김유라 동메달



지난 29일 강원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신슬기(왼쪽)·김유리와 최원감독.

원(41) 감독은 “김유라는 밟기술을 잘 구사하고, 신슬기는 허리기술에 강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두 선수 모두 힘든 훈련을 묵묵히 따라 주었는데 준결승에서 이렇게 페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감독은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마다 특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전훈련에서 여러 상대를 잡아봐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방어 면 역력이 생긴다”며 “앞으로 부족했던 연결기술과 체력을 보완하겠다. 오는 7월 하계 실업연맹전과 10월 전국체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강팀인 여수 정보과학고와 서울 광영여고 유도부와 2차례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량을 쓸어왔다. 신슬기는 제89회 전국체전 1위, 광주체중·광주체고 출신인 김유라는 2011년 전국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1위에 오른 실력파이다.

최원 감독은 “김유라는 밟기술을 잘 구사하고, 신슬기는 허리기술에 강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두 선수 모두 힘든 훈련을 묵묵히 따라 주었는데 준결승에서 이렇게 페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감독은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마다 특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전훈련에서 여러 상대를 잡아봐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방어 면 역력이 생긴다”며 “앞으로 부족했던 연결기술과 체력을 보완하겠다. 오는 7월 하계 실업연맹전과 10월 전국체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자 국내에서는 10번째 여자유도팀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 여수·시청 남자유도팀 외에는 실업팀이 없었다.

공사 여자유도단은 창단 이후 고교

## 제52회 전남도 체육대회 장흥서 7일 개막

22개 시·군 6300명 참가…40년 연속 출전 선수 눈길

200만 전남 도민의 체육 한마당장치인 전남도 체육대회(이하 전남도체전)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동안 장흥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전남도체전은 ‘펼쳐라! 전남의 꿈, 장흥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22개 시·군 선수 4300명과 일원 등 6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체전 방식에 의한 시·군 대항전으로 진행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까지 50% 채점에 그쳤던 바둑과 억도가 100% 채점으로 확대되고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특히 학생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부 종목을 고·대·일반부로 확

대 통합(6종목)해 축구와 궁도를 제외한 18개 종목으로 늘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개회식이 생중계되고, 개회식 입장시 각 지역을 특색있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풍선, 특산품 등 개인 흥보물 지침이 허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7일 오후 4시부터 장흥 고성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은 차기대회 개최지인 무안을 선두로 원거리 지역 순으로 입장한다.

이번 대회에는 고효재·고혁재(순천·태권도)를 비롯해 쌍둥이 5쌍, 자매 3쌍, 형제 5쌍, 부부 10쌍, 부녀 3팀, 모자 1팀, 부자 1팀 등 이색적인

매년 출전하고 있다.

현 국가대표인 포환던지기 김민(복포), 수영 박선관(담양), 검도 김완수(무안), 육상 박주영(신안), 불링 최복을(광양)·김문정·김가람·김현미(이상 곡성) 등도 참가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다.

전남도 체육회 전승회 사무처장은 “당초 복포·광양·해남 등 5개 시·군에서 윤번제로 열던 도체전이 2011년 나주, 지난해 구례에 이어 올해 장흥에서 개최함으로써 도 스포츠 정책의 최대 역점사업인 군(郡) 지역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50회 대회부터 전남체육의 반세기를 맞아 도체육대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 차원에서 ‘전남도민 체육대회’를 ‘전남도 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선수들이 출전한다.

고효재·혁재 형제는 중학부 시절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타월한 실력을 뽐내 미래의 국가대표 0순위로 주목받고 있다.

나동길 전남복싱연맹 전무이사

(5·전 국가대표 복싱 감독)

는 전

남복싱 연맹 운영을 총괄하고 부인 조현심(53·전남도청 근무)씨는 나

주 정구 대표로, 아들 규호(23·한국

가스공사)는 영광 태권도 대표로

나선다.

여여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여수 김순기(정구)는 1973년부

터, 해남 박형호(정구)는 1975년부

터, 화순 오국탁(탁구)은 1976년부터

40여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

하고 있는 장수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